

第7輯

豐山文化院報



韓文俊 先生

鳥山縣·任存城·今勿縣

(詩)

任 存 城

옛날 그 옛적 /
內浦 마을
순박하게 살아왔던
우리네 백제古城

우뚝 솟은 봉수산
밤 내내 이슬 받아
은은히 이어온 任存城
박꽃같이 보기좋아

유민의 일편단심
땀으로 성을 쌓고
나라 부흥 정기는
바람에 흩 날린다

왕자 豊의 꽃내음
묘순이의 애환
모두 삼킨 禮唐池
그저 묵묵 간 물결
말이 없는 후손

무상한 세월끝에
물혀버린 역사여

題 老 峰 高 鳳 柱

寫 眞 鄭 德 彩

내 뿌리의 文化

우리가 살고있는 이고장을 內浦地域이라고 한다. 이內浦는 百濟의 故地이기도 하다. 周書의 百濟條에 의하면 『百濟의 習俗이 古書와 史書를 사랑하고 그중에서 뛰어난 자는 글을 잘 지을 줄 알며 父母와 夫의 喪에는 三年服을 입는다』라고 記錄되어 있다. 뛰어난 人物<名賢>과 忠孝 貞烈은 예로부터 連續이 이어오면서 고장의 文化를 形成해 왔다.

歷代의 祖上들이 슬기모아 이룩(創造)해온 우리文化를 繼承하고 그 精髓를 發顯해서 꽃을 피우게 하는데에 하나의 觀念으로 이목하려는 것은 그 眞(참)을 이어가기엔 어려울상 싶다.

막연한 생각(思惟)에서 操作된 眞理는 참된 眞理일수는 없다. 참된 眞理는 이러한 모든 思惟의 操作에서 招越해 있는 『있는 그대로의 眞理』만에서 찾아 볼수 있다.

實學者 李重煥先生은 그의 探里志에 『內浦에는 名山 伽鄒山과 鳳首山이 있다』고 記錄하고 있다.

伽鄒山은 百濟가 佛敎文化를 東晉으로 부터 받아드리는데 先進地 役割을 해 왔다.

鳳首山은 百濟가 羅唐軍에 亡하자 일어난 復興軍이 本據地였던 任存城城郭을 두루고 復興軍의 精氣를 담고 있다.

또한 이고장은 實學의 고장이기도 하다.

近代化의 물결을 불러일으킨 많은 實學者가 나왔다. 이러한 고장에서 선조의 文化를 傳承하는데 있어 『從來의 虛無하고 觀念的인 文化의 傾向을 止揚하고 우리의 固有文化를 實用的인 文化가 되기를 期待해야 하며 여기에는 本來의 우리 文化를 究明하고 考證에 힘을 써야 하겠다』고 實學的으로 풀이하고 『내 고장에서 만이라도 ………』하고 다짐해 본다.



(李重煥)

任存城 水攻出口

韓 惟 忠 (~1146)

崔 完 秀

(洞松美術館研究室長)

大興出身으로 본관도 大興이다.

벼슬이 宰相位인 中書侍郎門下平章事太子少師에 이른 인물이나 전기가 남겨져 있지 않아서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의 아들인 韓文俊이 『高麗史』 권 99 列傳 12에 一傳을 이룸으로써 그가 勤儉正直한 것으로 당시에 존중되었으며 벼슬이 平章事에 이르렀었다는 간단한 기록을 남겨 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高麗史』와 『高麗史節要』를 자세히 읽어가면 그의 活動상이 곳곳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하여 그의 行狀을 復原해 보겠다.

韓惟忠은 仁宗 24年(1146) 9月 17日에 中書侍郎門下平章事太子少師라는 實職 최고위 재상으로 작고한다.

이때 고려는 후삼국통일(936) 후 200여년이 지나면서 극단적인 右文政策에 힘입어 文臣의 배출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었고 그들의 活動도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래서 金富弼(1075~1151) 鄭知常(·~1135) 같은 一般 文士들이 續出 하였으며 드디어 그들 내부에서 파벌다툼이 일어나 李資謙(1126) 妙清(1135)과 같은 叛亂을 저지기도 한다. 이런 반란 형태의 파벌싸움은 곧 포화상태를 해소해 보려는 문신간의 자제정화운동의 일환으로도 把握할 수 있는데 다분히 地緣과 學緣으로 연결된 작파의 주도권 경쟁전의 양상이 두드러졌던 것처럼 보인다.

李資謙은 開京과 南京을 연결하는 中部 勢力으로 王室의 外戚으로 맨처음 막강한 勢力을 누리었으나 王位를 넘보려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金富弼 일파의 東京 勢力과 鄭知常 일파의 西京 勢力의 연합 공격을 받고 제일작으로 타도되었으며, 다음은 西京派의 주도권 경쟁육이 妙清의 형태로 나타나 東京派의 金富弼에게 무참히 진압당하고 鄭知常 등의 일급문사들이 제거되는 것으로 일단락 짓는다.

그 결과 金富弼은 翰忠定難靖國功臣으로 檢校太保守尉門下侍中判向書史事監修國史上柱國兼太子太保라는 名稱 겸비한 최고의 직위에 오르게 되고 이어서 『三國史記』 50권을 지어(1145) 前代 역사를 整備해 놓음으로써 文士 生涯의 至福을 누리게 된다. 『三國史記』는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中國正史의 嚆矢인 司馬遷의 『史記』를 본딴 것으로 이는 儒敎的인 史觀에 입각하여 중국의 上古시대로부터 前漢 초기에 이르기까지 紀傳體라는 서술방식으로 기술한 史書이니 金富弼이 <史記>란 名稱을 표방한 데는 儒敎史觀으로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正史라는 암시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중국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제야 이루어졌다는 文士로서의 시대적 자부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실 金富弼 一家는 北宋의 大文士로 儒敎的 理想主義를 부르짖던 蘇軾 一家를 흠모하여 그들 형제의 이름을 蘇氏兄弟의 이름자에 富字 한 자를 더하는 식으로 作名할 정도이었으니 그 一門의 宋文化趣向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는 비록 金富弼 一家에 국한되는 취향만은 아니었

으니 당시 文士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풍조 이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妙淸 등이 稱帝建元을 주장하면서도 宋과 더불어 金을 견제하자는 논법을 견지하는 자세에서도 이를 確認할 수 있다. 宋文化나 高麗文化가 모두 儒教經典과 詩·賦를 試驗 하는 科擧制度에 의해 선발된 文士들이 主役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시대배경을 생각한다면 그 사고의 동질성 때문에 오히려 당연히 그러 했어야 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든 韓惟忠은 이렇게 고려의 文選이극 성하던 시기에 바로 그 대표적인 文人官僚 의 한 사람으로 성공적인 生涯를 살다간 분 이다. 韓惟忠은 대체로 金富弼와 동년배이었던 듯한다. 그가 要職으로 부상하는 것은 李資謙亂이 평정된 뒤부터의 일이다. 李資謙 敗沒후에 仁宗王妃였던 그의 두 딸들이 모두 폐위출궁되고 宣平王後 金氏가 次妃로 재봉되면서 한유종은 그의 姻戚으로 점차 要路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듯하다. 仁宗 10年(1132) 閏4月 17日條에 承宣(正三品) 韓惟忠의 사위인 尹英瞻이 宣平王後의 姻戚으로 試題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王妃의 請으로 罷榜을 모면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어 벌써 韓惟忠이 正卿으로 재상의 班列에 올라王妃의 비호를 받고 있던 사실을 確認할 수 있다. 다음해 仁宗 11年(1133) 2月 19日에는 韓惟忠과 李之氏가 南宋으로 사신을 가다가 洪州 海上에서 바람을 만나 배가 거의 뒤집힐 뻔하여 되돌아 왔다는 기사가 보여 이미 遼宋使行의 正使가 될 만큼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뒤이어 4月 4日에는 王命의 出納과 軍機를 장악하는 樞密院의 副使(正三品)가 된다. 이어 13年(1135) 正月 4日에 妙淸亂이 일어나고 金富弼이 元帥가 되어 이를討伐하러 出征하였을 때는 樞密院 副使로 실제 조정의 軍機를 좌우하였으니 21日에 西京人들이 元帥의 최유와 詔命을 받들어 妙淸을 斬首하고 降伏하여오자 金富弼이 錄事 白祿珍을 보내어 上表를 올리고 兩府에 移書하여 降表를 가지고 오는 尹瞻 등을 후대에 줄 것을 요청하나 文公仁(·~1137), 崔孺(1072~1140)등 다른 재상들과 함께 韓惟

忠은 金富弼이 길을 돌아 곧장 쳐들어가지 않은 잘못을 들어 功이 없음을 지적하고그 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 결과 절망한 西京人들은 韃靼을 중심으로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 韓惟忠은 11月 4日에 禮部尙書修國史(正三品)란 文部의 長官직위로 영전한다. 그러나 仁宗 14年(1136) 2月 20日 大元帥 金富弼이 만 1년 동안 지속되던 西京반란을 完全 진압하고 4月 2日 凱旋將軍으로 歸京하여 온갖 영예와 권세를 독차지하게 되자 金富弼은 제일작으로 樞密院 副使 韓惟忠이 국가의 安危를 돌아보지 않고 兵機를 움직이려면 문득 방해했다는 죄목을 들어 탄핵케 해서 忠州使使로 좌천시켜 외직으로 쫓아 보낸다.

그리고 宿讐이 있는 尹龜(·~1111) 四子 尹彥頤(·~1149)를 鄭知常의 死黨으로 몰아 梁州防禦使로 몰아내는데 이는 金富弼이 차제에 中部勢力의 남은 기세도 마저 격으려고 그 중심인물들을 제거하려한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보복처사이었다. 실제 이들은 金富弼이 조정에서 專權을 행사하던 이후 만 6년 동안 내직에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仁宗 20年(1142) 3月 金富弼이 致仕하여 벼슬을 떠나자 同年 12月 28日字로 韓惟忠은 在僕射樞密院使判三司使라는 樞要的 職을 관장하는 재상의 직책으로 당당하게 內職에 陞差한다. 그의 무죄와 덕망을 국왕이하 대소 신료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상으로서 그의 지위는 더욱 굳어지서 仁宗 22年(1144) 12月 22日에는 參知政事判工部事兼太子少傅로 오르며 드디어 다음해인 23年(1145) 8月 6日에는 좌천될 때의 지위인 判尙書禮部事修國史에다 太子少保의 職이 첨가되고 12月 22日 金富弼이 『三國史記』를 撰進 하여 포상을 받은 바로 직후인 12月 26日에는 中書侍印門下平章事太子少師라는 최고위 실무재상지위에 오른다. 다음해 仁宗 24年(1146) 2月 28日에 仁宗이 薨去하는데 韓惟忠도 同年 9月 17日에 뒤따라 서거한다. 仁

宗의 지극한 眷遇를 받은 그가 최고위 실무 재상으로 大王의 상사를 모신 뒤에 따라 돌아갔으니 여한이 없는 文臣의 한 生涯를 잘 살다간 福人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 등극한 毅宗은 三日輟朝 하여 그의 상사를 애도하였다고 한다.

(『高麗史』卷十六 仁宗世家, 卷十七 毅宗世家 同 卷七三·七四 選舉志, 同 卷九六 尹瑀附彥頰傳, 九七 鄭抗傳, 九八 崔滋盛傳 金富弼傳 九九 韓文俊傳, 卷百二十七 妙清傳, 『高麗史節』 卷十 仁宗·毅宗代)

韓 文 俊 (1117~1190)

韓文俊은 平章事 韓惟忠의 아들이다.

『高麗史』 卷九十九 韓文俊傳에 의하면 그는 성품이 맑고 바른 위에 탁속한 기품을 타고났으며 어려서부터 글을 잘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부친인 한유충이 일찍이 남에게 “우리 가문을 일으킬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그의 출생 연도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高麗史』 本傳과 卷二十 明宗世家 등의 기록에 의하면 明宗 20년(1190) 8월 25일에 74세로 逝去한 것을 추정할 수 있어서 睿宗 12년(1117)생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는 10세에 李資謙亂(1126)을 겪고 그 결과 새로 册立한 宜平王後 金氏의 姻戚으로 그의 부친이 크게 發身하여 宰相의 位에 오르자 매우 행복한 소년시절을 보낸다. 그러나 19세 되던 해 妙清亂(1135)이 일어나자 그의 討伐과정에서 大元帥 金富弼과 樞密院 副使로 中央의 軍機를 장악하고 있던 그의 부친 한유충 사이에 不和가 심화되고 김부식이 西京을 평정하는 대공을 세우고 凱旋한 후에는 김부식 일파의 정치적 보복으로 禮部尙書修國史의 요직에 있던 그의 부친이 一朝에 忠州散使로 좌천되어 지방으로 쫓겨나는 바람에 불우한 청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20세 때인데 이로부터 6년동안 한문준은 학업에 열중하여 과거준비에 몰두하였던 듯하나 김부식 일파가 조정의 요로를 장악하고 있는 한 과거급제는 불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드디어 그가 26세되는 仁宗 20년(1142) 3월에는 이제껏 門下侍中이라는 首相의 자리에 앉아 大權을 휘둘러 온 김부식이 致仕하여 물러나자 正局이 점차 바뀌어 同年 12월 28일에는 6년동안 外職으로 쫓겨나있던 그의 부친 한유충이 在僕射 樞密院使判三司事라는 정부의 요직을 맡아 중앙으로 복귀하니 실로 人事 軍機 財政을 한손에 장악하는 樞要의 직책이었다.

이에 청년 한문준의 앞길도 활짝 열리게 되어 바로 文科에 급제하는 듯한데 『高麗史』 본전에서는 다만 仁宗朝에 登第하였다 하여 어느해 급제하였는지 확실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그의 부친이 중앙정계로 복직한 직후인 28세 때나 29세 때의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28세 때는 그의 부친이 試官의 우두머리인 知貢舉가 되어 직접

과거시험을 주관하고 이 시험에서 政敵인 김부식의 아들 金敎中(· ~ 1170)을 급제 시키는데 본래는 2등을 매기었으나 仁宗이 그 아버지 김부식을 위로하기 위해서 1등으로 올려주게 하였다는 것이다. 김돈중은 김부식과 한유충이 거의 동년배이었던 것처럼 한문준과 거의 동년배이었던 듯하니 혹시 이 과거에 함께 보았던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그러나 29세 때의 과거에도 김부식의 專橫을 견제하여 그의 부친을 중앙 정계로 복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國舅 任元趾(1089~1156)가 知貢舉가 되고 역시 그의 부친과 함께 김부식에게 정치적 보복을 받았던 尹彥頤(· ~ 1149)가 同知貢舉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때 과거에 통과하였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才名을 세상에 떨쳤다고 하는데 好事多魔格으로 그가 30세 되던 2月 28日에는 仁宗大王이 薨去하고 뒤이어 9月 17日에는 中書待即門下平章事太子少師의 재상직에 있던 그의 부친 한유충도 따라 돌아간다. 그래서 정치적 후견인을 동시에 잃게 된 그는 이후 주로 外職으로 돌게 되었으니 長州(지금 咸南 定平郡), 慶興, 南原 三郡의 副使와 南京(지금 서울)의 副留守를 역임한다. 그러나 그는 이르는 곳마다 惠政을 베풀어 칭송을 들었다 한다. 이 사실을 그의 門人 吳世材는 『남쪽 三郡의 풍속을 소생시키고 동쪽 一州 백성을 어루만지시네』라는 시를 지어 바쳐 축하하고 있다.

이렇게 그가 外職으로만 돌면서 人心을 얻은 것이 도리어 그의 生涯에 있어서는 轉禍爲福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주로 김부식계의 東京勢力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형편에서 文臣의 專橫이 극에 달하였던 毅宗(1147~1170)년간에 그 주역을 담당할 장본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소외되어 지방관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武臣亂이 일어나자 생명의 위험은 커녕 도리어 명망있는 文臣으로 중앙정계에 招致되어 御庫를 관장하는 大府寺卿(從三品)의 지위에 오른다. 30이전의 어린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후에 가문의 배경으로 內侍가 되어 부친의 권세를 믿고 除夕 繼體놀이판에서 10여세 연상의 무인인 奉龍殿正 鄭仲夫(1106~1179)의 수염을 촛불로 태우는 만행을 저지르다 따귀를 얻어맞고는 도리어 그 부친으로 하여금 일곱배 고하여 이를 처벌하게 하려 했던 김부식의 아들 金敎中이 左承宣(正三品)의 벼슬로 毅宗의 측근에 常侍하다가 武臣亂이 일어나자 紺嶽山으로 도망해 들어갔지만 수염을 태웠던 讐愆을 잊지 못한 정중부가 重賞을 내걸고 그를 찾았기 때문에 끝내 그 從者의 밀고로 잡혀 죽은 사실과는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었다.

무신난이 일어나는 것이 그의 나이 54세 때인 毅宗 24年(1170) 8月 29日이었다. 同年 9月 2日에 외종이 폐위되고 明宗(1171~1197)이 즉위하니 아마도 그의 나이 55세를 전후한 시기에 그가 중앙으로 陞差되어 왔으리라고 생각된다. 亂後의 무질서 속에서 武臣간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여 大將軍 李義方(· ~ 1174)은 大將

軍 李高(· ~ 1171)를 살해하고 鄭仲夫의 아들 兵部尙書 鄭筠(· ~ 1179)은 李義方 兄弟를 살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던 때이었다. 이 결과 정중부 부자와 정중부의 사위인 大將軍 宋有仁(· ~ 1179)이 대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특히 송유인을 정중부가 致仕한 후에 門下侍郎平章事, 中書侍郎平章事判兵部事 등의 재상벼슬을 거치면서 조정을 농락하고 왕실과 다름없는 참람한 생활을 누린다. 뿐만 아니라 文臣勢力의 저항이 지방반란 형태로 나타나 金甯當風(1173) 趙仁胤風(1174) 등으로 이어지면서 간촌 문신들이 이와 연루되어 대량으로 학살당하는 혼란이 연속된다. 이런 淵中에서도 한문준은 性命을 온전히 보존하여 점차 요로에 진출하고 있으니 그의 行身이 얼마 만큼 조심스러웠던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가 성품을 개결하게 타고나기도 하였겠지만 청년시절에 그의 부친이 정략의 희생으로 불운을 맞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자신이 다시 벼슬길에 나가자마자 부친의 서거로 정치의 핵에서 물러나 외방으로만 돌아야하는 불운한 세월을 겪는 동안 忍苦를 몸에 익혔기 때문에 이러한 처세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60세 되는 明宗 6年(1176) 8월에는 大府卿으로 同知貢舉가 되어 과거 시험의 副試官이 되는데 이때의 新及第로부터는 무신난으로 폐지되었던 遊街張樂을 다시 시행하게 하여 文臣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일을 감행한다.

그런데 이해 正月 1일에 이미 公州 鳴鶴亭에서 집권 무신들의 無法貧虐으로 생계를 잃은 천민들이 亡伊 亡所伊 등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어 9월 9일에는 이들이 한문준의 고향인 禮山縣을 攻陷하고 監務를 살해한다. 조정에서 토벌군을 내려 보내려 하니 군사들이 “侍中 鄭仲夫 및 그 아들 承宜 筠 사위 僕射 宋有仁이 권세를 가로채어 제멋대로 부리었으니 南賊이 일어난 것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약 병사를 일으키어 토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이들을 없애 다음에 해야 옳다”는 匿名榜을 내붙이고 이들의 無道한 橫暴을 성토하였다. 그래서 鄭筠은 두려워서 벼슬을 내놓겠다고 하며 며칠씩 조정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이었다. 이들 南賊은 조정의 적극적인 토벌작전으로 다음해 正月 8일에 일단 투항하는데 2월 10일에는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는 德山 伽鄴寺를 점거한다. 그러나 결국 2월 29일 伽鄴寺賊이 토벌되고 7월 20일에는 반란의 수괴들이 투항함으로써 난은 완전히 평정된다. 이사이 한문준은 고향이 반군에 유린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이들의 진압에 음양으로 많은 힘을 기울이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결국 62세가 되는 다음해(1178)에는 軍機를 관장하는 樞密院 副使가 되고 6월에는 首席試官인 知貢舉가 되어 과거시험을 주관한다. 그런데 이해 11월 정중부가 門下侍中으로 致仕하고 宋有仁이 門下侍郎平章事가 되면서 그의 專橫이 시작되어 다음해 5월 9일에 中書侍郎平章事判兵部事로 승차하면서부터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그는

名儒로 국왕과 朝臣들의 倚重을 받는 樞密院使 文克謙(1122~1189)과 副使 한문준을 覬覦하여 기어히 사소한 트집을 잡고 국왕을 위협하여 7월 3일에 자자 尙書右僕射와 判司宰寺事로 파견시킨다. 이에 송유인은 조정 상하의 인심을 략막 잃게 되는바 진즉부터 정중부 일가의 발호를 분하게 여기고 이의 討滅을 꾀해 오던 義血 青年將軍 慶大升(1154~1183)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9월 16일에 이들 鄭仲夫一家 三父子孀를 誅滅하여 中外의 歡呼를 산다.

이제 義將 慶大升의 快學로 사회정화가 되살아나게 되니 무력으로 만사를 해결하려 하던 무신들의 횡포가 한풀 꺾이는 듯하여 경주의 천민출신으로 무신난에 가담하여 무수한 살육을 자행하고 毅宗의 허리를 꺾어 弑害하였던 李義政(·~1196)같이 흉포한 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병을 핑계하여 고향으로 숨는다. 이런 형편에서 한문준처럼 명망있는 문신이 조정에 발탁되어 사회정화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64세가 되는 다음해 明宗 10年(1180) 12월 27日에는 參知政事(從三品)太子少保로 승차하여 재상의 班列에 들게 되며 그 직위에 나가자마자 다음해의 첫 政事로 관리들의 승진을 年限制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관철시킨다.

무신난 이후 문란해진 吏道刷新을 위해 신걸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아무 기준없이 멋대로 超遷을 자행함으로써 뇌물이 범람하고 執政者를 위협하는 등 갖은 非理가 횡행하였으므로 舊例에 따라 특별한 공로가 없는 한 文科及第者는 5년, 胥吏出身者는 8년마다 한번씩 균등하게 승급심사를 하여 승진시키자는 내용이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자신의 이해와 상관이 있는 자들이 이에 잘 호응하려 하지 않자 “前朝 毅宗시대 文臣들이 자자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사람의 善惡을 잘못 판단하여 패망하기에 이르렀었는데 이제 다시 前轍을 밟으려 하느냐”고 호명하며 시급히 시행하라고 하니 모든 郎官들이 더 아무 말 못하고 시행하였다 한다. 이렇게 吏道를 바로잡은 뒤에 12월 28日에는 寶文閣大學士判禮部事로 자리를 옮겨 이제는 文敎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그리고 66세 되는 明宗 12年(1182) 6月에는 政堂文學(從二品)의 재상자격으로 다시 과거시험을 주관한다.

세번째 맞는 試官자리인데 그가 선발한 及第者들이 많이 후일에 名士가 되었으므로 『고려사』 본전에서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 세번 과거시험을 맡아보았는데 뛰어난 바에 명사가 많았다.』라 기록하고 있다.

義將 慶大升이 大權을 쥐고 있는 한 무신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무도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여 사회는 점차 안정되어가는 듯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경대승이 明宗 13年(1183) 7월 15일에 疝성들의 哀痛속에 30세의 젊은 나이로 病死하니 세상은 다시 어지러워진다 이런 상황을 막아보려고 67세가 된 한문준은 12월 3일에 判兵部事

를 겸하여 兵權을 장악하는데 반란을 두려워한 식악한 明宗이 다음해 2월에 경주로 中使를 보내어 李義政을 불러 올림으로써 한문준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고 정국은 크게 불안해진다. 이미 정계의 원로가 된 한문준은 다음해 12월 30일에 68세의 나이로 門下侍郎平章事判史部事로 명색 행정부 최고실력자가 되지만 무신난의 主役 중 가장 횡포한 李義政이 大權을 장악한 채 百官을 총괄하는 尙書省의 실력자인 守司空左僕射(正二品)로 함께 재상의 班列에 들으로써 그에게 실권이란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 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69세가 되는 다음해 9월에 星變이 있자 책임을 지고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나 국왕은 이를 허락치 않는다. 그해 12월에 그는 재상으로 契丹 歸化人인 散員同正 尉韶가 病父를 고치기 위해 의원의 말을 듣고 자신의 허벅지살을 떼내어 그 부친에게 먹인 효행을 포상하고, 旌表해야 한다고 文克廉과 함께 上奏하여 풍속을 바로잡으려 애쓴다. 그러나 뒤이어 12월 28일에는 毅宗實錄의 내용에 무신들의 비행이 그대로 적혀 있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 국사기록을 문신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하여 上將軍 崔世輔가 同修國史의 자리까지 차지하니 개결한 성품의 老宰相 한문준은 도저히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明宗 16년(1186)에는 70세의 나이로 致仕하여 官界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이제부터는 복잡한 세속사와 인연을 끊고 집안에 들어앉아 뜻이 맞는 高人 縉士들과 더불어 詩酒와 逍遙로 餘生을 즐기게 되는데 73세때 그와 평생 뜻을 같이 하던 후배재상 文克廉이 68세의 나이로 그보다 앞서 서거하자 그도 난마같이 어지러워지지만 하는 세상사를 한탄하며 1년후인 明宗 20년(1190) 8월 25일에 74세를 一期로 고단했던 한 생애를 끝마친다. 明宗은 그의 訃言을 듣고 三日輟朝하여 哀悼를 표시하고 貞懿라는 諡號를 내렸다.

文臣배출이 포화상태에 이른 시기에 바로 그 문신으로 태어나서 문신들의 자체정 화운동으로 벌이는 각종 문신반란을 몸소 겪으면서 자라고, 다시 청장년기에는 극도에 달한 문신의 횡포속에서 그 자신이 그 횡포를 미워하여 오랜 동안 지방관으로만 밀려다니다가 무신난이 일어나자 그들에게 명망있는 문신으로 인정받아 중앙으로 불리워가서 문신보다 몇배나 더 무도한 그들의 횡포를 견디어내며 國體를 유지하려 애쓴 그의 평생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그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명재상이 있었기에 무신의 횡포가 더 극한으로 치달리지 않아 백성들이 숨통을 트고 살 수 있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高麗史』 卷二十 明宗世家, 卷七三 選舉志一 選舉, 卷七五 選舉志三 銓注, 卷九八 金富弼傳附教中, 卷九九 韓文俊傳, 文克廉傳, 卷一百 慶大升傳, 崔世輔傳, 卷百二一 尉韶傳, 卷百二八 鄭仲夫傳附宋有仁, 李義政傳, 李義政傳 『高麗史節要』 卷十二·十三 明宗代)

(詩)

진달래 맥

金 順 蓮

청정한 삼월의 뜨거운 함성 열리고
연분홍 진달래의 꼭 다문 입술이
작은 연초록 물결을 일으키고
소리없이 정념에 찬 이름없는 아우성.

핏빛 토해낸 한줌의 뉘는 脈
쌓다가 울리다 더 품을 수 없었던 儀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박혔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나의 本土

어머니
어머니, 품속 順命의 토박인
오늘도 와락 울것같은 하늘의
푸르름에 심장의 고동소리 바람에 날리며.

보랏빛으로 어울진 과수나무의
울부짖음을 삼월엔
진한 아픔조각을
가슴으로 쓸어 안으며

수액으로 가득찬 뿌리를
흙과 바람으로 토닥이며
즐비한 은행나무의 까치소리 자르러지면
네 그리운 님 찾아 오시려나.

[탁마독서회원]

고장의 時調 뿌리는 自庵 金 絳 先生

逸話와 夜話

이름은 絳이요, 子는 大柔요, 호는 自庵이고,貫은 光州人이요, 大興縣監 季文公의 아들로 成宗 19年(1486)에 태어났다.

自庵先生은 타고난 性品이 高貴하고 行動이 篤實하여 어려서부터 夙學하고 學向을 研究할 뿐더러 音律에 취미를 갖고 몸을 닦았으니 그가 함께 사귄 이들은 모두 당시의 명 선비들이었다.

中宗이 文治에(道學政治) 뜻을 두고 世上의 風度를 새롭게 하려는데 靜庵 趙光祖와 함께 王을 도와 亮舜때 政治를 재현하여 儒教를 흥기시킬 計劃을 세웠다. 先生은 中宗 2年(1507) 19歲에 生員과 진사에 모두 壯元급제하고 中宗 8年(1513) 25歲에는 새로운 제도인 賢良科를 통한 文科급제하여 道제학으로 임시하였다. 先生이 文科(사미시)에 합격하였을때 시험관이 칭찬하기를 “이 文章은 한 퇴지가 글을 짓고 왕 회지가 글씨를 쓴것과 같다”고 壯元으로 뽑았다고 전해진다.

先生의 筆力이 強建하여 스스로 一家를 이루었으니 여기 조선초기 四大筆家中의 한 분으로서 先生의 書體를 仁壽體라 한것은 仁壽坊에서 살았는데 연유를 묻다. 그리고 先生이 掌樂院正으로 옮기었다.

이는 특히 先生이 아악(雅樂)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音律을 깊이 알았음으로서 雅樂을 바로 잡기위한 中宗의 뜻이기도 하다. 先生이 別曲, 短歌등을 지어 부르기를 좋아하였으니, 어느날밤 先生이 官中玉堂에서 숙직을 하면서 밤늦도록 낭랑한 목소리로 讀書를 하고 있을때 갑자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中宗께서 청상내 오르시고 별감은 주찬을 들고 따라왔다. 先生이 급히 나가 들아래 엎드리니 中宗께서 올라오라 하시며 「이간이 달 밝은 밤에 글 읽는 소리가 좋아 왔으니 君臣의 禮를 벗으로 대하라」하시며 술잔을 나누시면서

「글 읽는 소리가 이토록 淸雅하니 歌曲도 잘할것이 아니냐 한曲 불러 보라」하시었다고 한다.

先生은 호조관서의 恩典을 입고 1517年 中宗 12年 承政院 同副承旨를 거쳐 左承旨로 옮기고 다시 中宗 13年 1518年 副提學에 이르더라.

이때 北門의 화가 일어났으니 말



해서 己卯年(1519) 11月 15日 靜庵과 함께 自庵先生도 함께 己卯土禍에 연류되었으나 多幸이 鄭 光弼의 敎育을 입어 先生은 杖刑을 입고 開寧으로 귀양갔다가 몇달후 罪를 더하여 南海로 옮겨졌고 다시 臨陂로 옮겨진지 2年만에 流配에서 풀려났다.

1533年 中宗 28年 絶梅孤島에서 15年을 苦生하다가 석방이 되어 비로서 집에 돌아왔을때는 父母는 이미 世上을 떠났다. 父母의 墓所를 찾아 朝夕으로 시묘하다 氣絶한 일까지 있어 무덤앞의 풀이 先生의 눈물로 말았었다고 한다. 부모를 그리는 눈물生活 1年만인 中宗 34年 11月 16日 先生 나이 46歲를 一期로 世上을 떠나시니 장례를 신암면 宗敎里에 모시었다. 宣祖때 이조참판에 追贈되고 禮山에 賜額 德峯書院에 獨峯형되고 臨彼의 鳳巖書院에 配享되고 諡號는 文懿이다. 先生은 世上에서 書家요 詩家人이요 雅樂家로 孝子이다. 先生은 自庵集과 유목과 용현과 玉笛가 15代 宗孫 准희氏가 保存하고 있으며 遺筆로 外祖 이집(李謙公)의 墓碑가 내려오고 있다.



金月荷 聯合會長 參席裡 文化院서

예산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시조경창은 지난 6月 15日 12時 예산문화원 주최로 고장의 시조의 뿌리를 自庵 金 鍊 先生으로부터 찾고 追慕 第一回 禮山郡 男·女 時調 競唱大會를 성대히 가졌다.

入賞者名單

郡 內		郡 外	
老人部	1等 仁 鉉 澤	乙部	1等 金 詰濟 (洪城)
	2等 朴 基 澤		2等 金 英愛 (靑陽)
	3等 金 基 漢		3等 梁 元錫 (天安)
	3等 申 達 麟		
乙部	1等 金 水 配	甲部	1等 金正坤 (唐津)
	2等 夜 光 德		2等 任 光宰 ()
	3等 尹 容 均		3等 李 登鎔 (靑陽)
	3等 朴 在 愼		
甲部	1等 金 水 夏	特部	1等 金 信玉 (保寧)
	2等 林 道 善		2等 李 海遠 (牙山)
	3等 李 元 益		3等 李 寅旼 ()
	3等 申 鉉 武		

韓國文化藝術振興院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老人부, 1부, 2부로 나누어 각급기 관장과 忠南西部地域의 많은 詩調人들이 참석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특히 시우회 中央會長인 金 月荷女史의 始唱은 詩友人들에 詩調의 진수를 아로 사이게 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날 參席한 인사와 시우인들에 미리 準備한 도시락과 보리차, 그리고 커피등을 대접하였으며 예산 시우회장 김종석氏는 다음 대회부터는 規模를 좀더 擴大하여 全國規模로 승격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예산시조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하였다.

글 씨

申 錫 根

글씨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럴 듯도 하나, 과연 확실히 그럴는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하는 말. 자기의 의견을 다시 고집하여 말할 때에 쓰는 말. 남의 요구하는 것이나 묻는 말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고 어물어물 대답할 때에 쓰는 말—(앞의 풀이 중,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여 말할 때에 쓰는 말로써의 ‘글씨’는 언급하지 않기로 함)

굳이 사전의 풀이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이 ‘글씨’라는 말이, 입장이 난처할 때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잠시 보유하는 말로 쓰이고 있음을 나는 생활속에서 터득해서 알고 있다.

글씨라는 말은 전국적으로 두루 쓰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충청도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다.

충청도 사람들이 글씨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성격에서 연유된 것으로 나는 본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충청인들은 마음의 움직임이 느린 편이다. 마음의 움직임이 느리다 보니 행동이나 말 또한 느릴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충청인들은 무슨 일 에건 먼저 차고 나서는 일이 없다. 또한 누가 무슨 말을 하건 곧바로 달고 나서 지를 않는다. 이런 성격구조 때문에 충청인들은 글씨라는 말을 자주 쓰는 모양이다.

나는 가끔 충청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느긋한 성격을 형성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도나 북녘에 사는 사람들의 말씨나 행동이 역세고 팔팔하게 된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기도 한다.

우선, 자연의 배경을 보더라도 남도나 북녘 지방엔 난조건이 많다. 남도의 빈번한 홍수와 가뭄, 북녘의 폭설과 혹한,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자니 사람들의 의지가 강인해졌을 것이고 성격이 팔팔해졌을 것이다. 또한, 남도나 북녘은 변방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범이 비교적 많았던 곳이다. 남도의 빈번했던 왜구의 노략질, 북방의 수없이 많았던 대륙 오랑캐들로 부터의 침략질, 이런 난리북새몽에 시달리다 보니 그 곳 사람들의 성격은 자연히 급하고 서두르게 되었을 것이다.

거기에 반해서 이 곳 충청도, 그 중에서도 예산 지방은 재해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날씨도 비교적 온화할 뿐더러, 큰 홍수나 큰 가뭄도 다른 지방에 비해 적은 편이다. 또, 국토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외세의 침범을 비교적 적게 받은 곳이기

도 하다. 이런 호조건 속에서 살다 보니 사람들의 성격이 느긋하고 행동이 굼뜨게 되었으리라.

며칠 전, 어쩌다 지면(誌面)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된 경상도의 한 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충청도 사람들의 느린 말투와 굼뜨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다. 높낮이 없이 느린 말을 듣자면 속이 답답하다는 거였다. 평생에 급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굼뜨른 행동을 보자면 짜증까지 난다고 했다.

나는 전에도 이런 비난을 많이 들어 왔다. 심하게 말하는 이는 충청도를 멍청도라 말하기도 하고, 충자를 蟲자로 표기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분개를 하지는 않는다. 하나만을 보고 하나는 생각치 않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뿐이다.

글쎄? 하고 한걸음 물러섰다가 일에 손을 대고, 글쎄요? 하고 한참 뜬을 들이고 나서야 입을 때는 충청인들을 변방 사람들이 보면 답답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험한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큰 죄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둘러서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작게는 일상생활이 그렇고, 크게는 인생문제가 그렇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을 보더라도 그것을 익히 알 수 있다.

충청인들이 서두르지 않는 품성을 갖게 된 데는 자연적인 호조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더 큰 연유를 하나 더 단다. 그것은 서둘러서 이로운 게 없다는 진리를 충청인들이 타지방 사람보다 먼저 깨닫고 그것을 생활화 했다는 점이다.

충청도, 특히 예산 지방은 재해가 적은 지방이면서 한양과의 거리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원로 재상들이나, 시끄러운 세상에 등을 돌린 뜻있는 선비들이 많이 내려와 살았던 곳이다. 세상풍파 다 겪은 원로재상들이나, 고고한 뜻을 품은 선비들이 삶을 사는 데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한 발짝 여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그들의 행동은 언제나 몇뼘의 여분을 두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그들의 생활은 하나의 본이 되어 대중속에 파고 들어 생활습성이 되었을 것이며, 나아가 지방색을 이루었을 것이다.

글쎄?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 글쎄요? 하고 뜬을 들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는 느긋한 마음이야말로 타지방 사람들이 비난해서도 안되고, 충청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 할 필요도 없는 독특한 지방색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충청인들 스스로의 입에서도 지방색을 개탄하는 것을 더러 본다. 나는 이들의 마음이 덩달아서 조급해지고 있지만 않은가 하고 은근히 걱정이 된다. 서둘러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남들이 서두른다고 같이 설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뛰는 자도, 걷는 자도 결국은 한 차에 오르게 된다. 그럴바에야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뿔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느긋한 마음으로 주위를 관찰하면서 점잖게 걷는 것이 오히려 품위가 있어 보기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게을리지는 말은 아니다. 게으름과 느긋한 여유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소가 웃더구먼

(故 尹炳求氏의 片貌)



秋 澗

4.19 때

총성이 멎고 리승만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이화장으로 돌아가자 서울거리는 온통 환희의 물결이었다. 학생들은 승리의 환성을 울리며 광화문통을 데우고 있었다. 그 때, 나는 국제극장앞 2층 다방에서 거리를 바라보고 감회에 잠겨 있는데 비란간 다방 입구가 떠들썩 했다.

“허허! 세상 다 됐구먼! 는 팔고 발 팔고 농우소까지 팔아서 대학공부 시켜 놓니께 한다는 것이 저지랄이니... 이박사 동상을 꺼꾸러 드리고 목을 잘라서 새끼줄에 묶어서 개갈뚝 절질 끌고 다니니... 팔십평생 애국한 국부의 동상을 하유! 저게 동방예지의국의 지식인들여! 빌어먹을...”

윤병구씨의 그 독특한 목소리가 온 다방의 감담을 딱 멎게 했다. 아무도 댓구하는 사람이 없었다. 때가 때인만큼 모두 입조심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리의 환성이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지만 4.19 학생들의 행동을 그처럼 마구 비판할 그런 때가 아니다. 더구나 윤병구씨의 경우는 자유당국회의원, 입이 열개 있어도 병여리가 돼야 할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오히려 더 큰소리로 학생들의 망동을 규탄하는 것이다.

윤병구씨는 제자리에 서서 듣기에도 아슬아슬한 육지거리로 학생들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내 앞자리에 와 털썩 앉으며

“어떻게 생각하슈! 언론계의 중진의 의견쯤 들어봅시다.”

하고 접어들었다. 다방안의 시선들이 내게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나도 일부러 목청을 높이고 쏘아대듯 했다.

“패잔병은 일찌감치 고향을 찾아가는거요...”

“허허허허! 그러... 씨발끼 이글 저글 보기 싫으면 봉사가 되는 수밖에... 야 이이지배들 이리와 차 주문 말어!”

어느새 그는 손에 동전을 들고 레지를 불렀다.

그후 얼마 있다가 예산 어느 다방에서 그를 만났다. 나는 첫인사로 “뿔하고 지내슈?” 하니까 “근 떨어진 놈이 할것 있오? 첫담 울면 일어나 여물 쏘고... 야 이년들아 여기 차 주문 말어!” 그는 말을 하다 말고 레지에게 호통을 쳤다.

“배운게 없으니 어느놈 찾아가서 하다못해 수위래도 시켜 달라고 하고 싶지만 씨

발끼 국회의원 지낸 놈을 수위로 써줄라고 해야지... 이거 보슈... 잘 배고 작두
걸하고 쇠뿔 굵고 하다 보니께 손이 이렇게 되더군! 공산당놈들이 또 쳐내려와
서 내 손을 보면 동무 반갑소 할꺼라구면 하하하하!”

그의 익살은 여전했다. 그는 또 그황소같은 이빨을 들어내며 히죽 웃으면서
“덕지가 된 쇠영동이에 똥을 끌어주면 그자식 혈꽃 쳐다보면서 히죽히죽 웃드라
고... 풀 좋다는 거지... 호호호호!”

나는 그가 그냥 시골에 묻혀 농사나 짓고 지내는줄 알았는데 서울 관훈동골목에
서 다시 만났을때는 헌팅 캡을 쓴 멋진 신사로 여전한 익살을 부렸다.

“윤병구 영 죽은줄 알고 농협돈 한푼 얻어쓸수가 없으니 농사도 못짓겠드라고...”

“제헌의원 동지회에 나오슈?”

“근 떨어진것들끼리 만나니 뭐 할게 있어! 점심때만 되면 어느놈이 국밥한그릇
이래도 사줄려나 하고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혼자 빠져나가서 국수 한그릇 우
겨넣고 와서 바둑이나 두고... 보리쌀짜이나 돈 내서 올라와서는 그놈들 국밥 한
그릇씩 사주고 육만 실컷 하고 이제 가는 길여 호호호호! 차 한잔 합시다...”
내가 삼교에서 목장을 하게 됐을때 윤병구씨가 불쑥 나타났다.

“문필대가가 우리 고장에 와 사신다니 안찾아 볼 수 있오!”

예산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케익상자를 들고 찾아온 그는

“혼자만 좋은 사업 하지 말고 불쌍한 윤병구도 이런것좀 해 봅시다...”

하면서, 목장을 경영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땀방울 떨어뜨렸다.

“쇠뿔 끌어주는데는 이골 났으니께...”

“천하를 쥐고 흔들던 국회의원이 이런걸 하실수 있습니까... 나같이 서울서 못살
고 쫓겨온 사람이나 하지...”

“거 그러지마슈! 이제는 마누라하고 소나 기르며 사는 수 밖에 없오. 거들먹거
리고 찻잔이래도 사줄때 윤병구지 근 떨어지니께 거리에서 만나도 피하드라고...
서러워서 이거 어디 살겠오!”

그는 기어코 목장을 만들고 젖소를 길렀다. 어느 신문에 제헌군회의원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기사에 윤병구씨는 목장을 경영한다고 나와 있는것을 보고 소가 몇마리나
고 어느 친구가 물드라나... 그래서 그는

“이 XX이 같은 놈이 이백마리 삼백마리를 기르는 것도 목장이고 윤병구가 다
셋마리 기르는것도 목장은 목장이다.”

하고 소아했다고 했다.

그 윤병구씨를 이제는 다시 만날수 없고 그 시원스런 익살도 들을 수 없게 됐
으나 지금도 예산 거리에서나 서울 어느 다방에서 “추생생!” 하며 손짓을 할것만
같다. 고인에게 망발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평소 그의 편모를 적어 명복을 빈다.

惠菴 大禪師 法語

人生의 眞面目



불생불멸(不生不滅)이 참 사법인데, 우리는 무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형상을 바꾸었던가? 천상(天上)세계, 인간(人間)세계, 귀신(鬼神)세계 등의 갖가지 고락을 받으면서 몸을 받을 때마다 꺾뎠기를 바꾸어 썼다. 선업(善業)을 지어서는 천상이나 인간에 낫고, 악업(惡業)을 지어서는 귀신이나 축생의 몸을 받아 영겁(永劫)으로 무수한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일체 중생이 자기의 본래 면목(本來面目)을 망각한데 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미(迷)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본래 밝은 마음이 왜 미(迷)였는가? 번뇌와 망상, 그리고 욕심에 덮여 청정한 마음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비유로 말하면 청천(靑天)의 밝은 달이 나타나지 못함과 같나니, 그 검은 구름은 번뇌 망상에 비유한 것이요, 밝은 달은 마음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잘 수양하여 저 서쪽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서 구름을 벗겨 버리는 것과 같이, 마음의 구름을 벗겨 버리고, 밝고 맑은 본래의 고향 달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눈으로 모양을 본다. 그러나 송장은 눈이 있어도 물건을 보지 못한다. 눈이 아닌 한 물건이 있어 무엇이든지 보지마는, 무엇이 보는지 아무리 돌이켜 보아도 한 모양도 볼 수가 없다. 아무리 보려고 하여도 한 모양도 볼 수 없을 때에, 저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검은 구름을 벗겨 버리고 밝은 달이 나타난 것이며, 아무리 보려고 하여도 한 모양도 볼 수 없을 때에 미움과 친함이 없어진 것이며, 아무리 보려고 하여도 한 모양도 볼 수 없을 때에 생사를 면하는 것이며, 아무리 보려고 하여도 한 모양도 볼 수 없을 때에 고해(苦海)를 벗어나는 것이다.

일체 중생이 나고 죽을 때 항상 육체만을 보고서 나는 죽는다 하지만 나고 죽음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망념(妄念)된 생각으로 난다 죽는다 하는가? 난다 죽는다 간다 온다 피로움이다 즐거움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명상(名相)뿐이요, 실체(實體)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없는 동시에 개인 개인의 그 신령스럽게 비치는 불성(佛性)은 시방 세계를 통하여 두두(頭頭)에 항상 밝고, 물물(物物)에 항상 나타나 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때에 그렇게 나타나는가? 혹은 눈에 보이는 색도 있고 귀에 들리는 소리도 있을 때, 그 때에 바로 그것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다.

눈에 색이 보이고, 귀에 소리가 들릴 때에 밝게 나타난다고 하지마는 눈에 보이는 색도 없고 귀에 소리도 없을 때에는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그때 그것은 잠자코 있다가 때를 당해 인연이 오면 오늘 이와같이 이 「법어집(法語集)」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나타나는 자체는 삼세(三世) 모든 부처님의 설법도 미칠수 없고, 천하 선지식의 전법(傳法)으로도 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나타나는 자체는 인연도 끊어졌고, 대(對)도 또한 끊어진 것이니, 이것은十方 세계(十方世界)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참 면목(面本)이며, 천하 선지식의 참 면목이며, 오늘 이 대중의 참 면목이다.

그뿐 아니라 일체 중생이 고금을 통해 그것을 수용(受用)해 오지마는 아무리 해도 다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개개인이 본래 갖추고 있는 참 면목인 것이다.

身是正法藏 몸은 바로 이 바른 법을 감추었고
心爲無碍燈 마음은 걸림 없는 등불이니,
照露諸法空 모든 법의 공함을 다 비추나니
一切皆明見 일체를 모두 환히 보네

惠菴大禪師 德崇叢林葬

修德寺 德崇叢林 방장 惠菴 大禪師의 다비식이 수덕사다비장에 전국에서 모인 불자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지난 5월 23일(오전 11時) 엄숙히 거행되었다.

지난 5월 19일 오전 8時 40分 덕숭총림에서 入寂한 혜암대선사는 속명은 崔 順天 法名은 玄文, 법호는 惠庵으로 1885년 10월 21日 황해도 백천군 해월면 해암리에서 3대독자로 태어났다. 속세나이 101歲로 12살에 出家하여 89年동안 오직 불도에 정진한 큰스님 혜암대선사는 “無相 無空 無非空(상도 없고 공도 없고, 공이 아님도 없다.)더이상 할말 없다.”라는 臨終偈을 남기시었다.

15歲에 득도하고, 45歲(1929年)에 만공(滿空)대선사로 부터

“語默動靜句(어묵동정구), 中誰敢着(고중유감착), 問我動靜離(문아동정구), 郎破器相從(랑파기상종) 어묵동정 한마디 글귀를 이날 가운데 누가 감히 부딪칠 것이나? 나에게 동정을 여의고 이르는 말을 묻는다면 곧 깨진 그릇은 서로 마주치 못한다고 하리라”

라는 悟道頌으로 傳法계를 전수하고 수법 제자가 되어 불교발전을 위해 후신의 수행과 많은 제자를 길러내셨다.

수덕사, 마곡사, 팔정사 조실을 역임하셨고 마곡사에 국채선원을 개설하였으며 1984년에는 100歲에도 불구하고 瘦美하여 호서능인선원을 개설하시는 등 한국불교의 지주로서 커다란 행적을 남기셨다.

주요 저술로는 “선관법요”, 편저로는 “선분찰요”가 있고 최근발행된 “혜암-큰스님의 벼랑끝에서의 길을 묻는 그대에게”가 밀알출판사에서 나왔다.



植民地怨 教育事業에 풀어

天道教 四代道主 朴寅浩 先生 遺墟碑 除幕

평생을 이나라를 위해 중년에는 동학, 후반기는 天道教에 몸을 담아 日帝식민지의 한을 民族의 개명과 개화에 두고 육영사업에 몸을 바친 春菴 朴寅浩先生의 출생지인 삼교에 그의 遺墟碑가 세워졌다.

지난 5月7日(火) 11:30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 1구 廣場에서 국회의원, 예산郡守 警察署長, 평동會長, 郡內 各級 機關長과 住民 그리고, 천도교도등 約 500여명이 모여 삼교고등학교 취주악대의 장엄한 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春菴 朴寅浩先生 遺墟碑가 除幕되었다.

春菴上師 朴寅浩 遺墟碑文

近世朝鮮의 氣運이 衰退하기 始作했습니다. 王朝를 지탱해준 儒敎의 道德이 統制力을 잃어 國民精神은 解弛해지고 産業은 萎縮되었습니다. 王權은 땅에 떨어지고 權臣의 橫暴는 無所不至하고 鄉班의 收奪과 流賦의 行悖는 그 度를 넘어 國民들은 生의 意慾을 잃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希望을 바라볼수 밖에 없는 狀況이었습니다. 참으로 暗晦했습니다. 이 때에 嶺南의 水雲大神師의 崔濟愚께서 蒼生을 救하러 人乃天 宗旨의 東學을 創道하시니 新時代의 希望이라 믿는 教徒가 구름같이 모여 海月神師의 命에 따라 湖南의 全公球華이 除暴救民과 斥洋斥倭王道匡正의 旗幟아래 古阜에서 起包하니 그 勢기름에 불붙인듯 燎原의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湖西에 한偉인이 있어 摩下七千軍兵으로 洪州에서 起包하니 五萬의 大兵이 모여들어 一大狀觀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자리에서 나고 자라온 民族의 龜鑑이 되신 朴公寅浩이십니다. 공이 가신지 半百年이나 지난지금에서야 비로소 공의 偉業을 밝히고 追慕하여 後學의 指南으로 삼고자 여기 碑를 세워 功을 기리는 바이다. 공은 1855年 密陽人 朴公命九와 溫陽方氏 사이에서 태어 나셨습니다. 天性이 총명성실하시고 勝力이 남달리 健壯하셨으며 父君의 謹嚴하시고 方正한 德性에서 나온 家規를 이어받아 10年을 하루같이 衣冠을 不解하시고 魚肉酒草를 斷絶하시며 낮자무를 베개하시어 臥薪의 至誠으로 篤工하셨습니다. 사리에 어긋나는 일을 생각하는 바가 없으셨고 한번의 失手는 두번다시 되풀이 하시지 않았으면 하고자 하는 바가 中途에서 그치는법이 없으셨습니다. 萬人의 長이 되실 稟格을 닦으셨던것 임니다. 29歲에 輔國安民의 큰 뜻을 품고 東學에 入道하셨고, 41歲에 除暴救民 斥洋斥倭王道匡正의 一念으로 德包七千軍兵으로 洪州에서 起包하시니 그勢五萬을 넘어 衝天하였습니다. 허나 莫強한 日兵과 汚川의 승전복 禮山의 新禮院接戰을 마지막으로 後日의 期約을 안고 出師의 旗를 내리지 않

을 수 없었습니다. 甲午革命이 끝나매 서울에 올라가 義菴聖師 孫秉熙를 모시고 民族抗爭의 大長征에 心血을 기울리셨습니다. 道勢를 整備하시고 東學을 天道教로 顯道하는데 至대한 努力을 하셨습니다. 이에 教勢가 三百萬이요 大教區가 36個所요 教區가 數百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宗學院을 세워 教役者를 養成하시고 誠米制度를 만들어 人的物的體制를 갖추니 이에 처음으로 民族宗教임을 誇示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公의 力量이 온무리를 뛰어넘으니 54歲에 教主를 承繼하여 새로 뒤편지는 民族開花 獨立運動을 主導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甲辰年에 新生活運動이 일어나니 이는 東學本來의 念願이었습니다. 公은 學敎的인 役事로 그任을 自擔하시니 그組織과 敎인들이 出敎하는 莫대한 財源은 때를 얻어 民族啓蒙運動에 全力을 쏟으니 文字媒體의 大衆化를 爲해서 普成社를 創設하여 文化의 大衆化에 힘쓰셨고 雜誌「開闢」을 發刊하여 知識人의 敎化에 힘써 내것을 찾고 알고 가꾸고 지키는 意識을 키우는데 萬般을 期하셔서 民族自尊의 歷史的 課業에 精進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農民」을 發刊하여 農村의 文明化에 힘썼고 「어린이」를 發刊하여 民族改造의 大役事를 소리없이 進展시키 나갔던 것입니다. 啓蒙事業의 大宗은 育英만한 것이 없음을 깨달으신 公은 學校를 세우기로 결심하여 普成專門學校 普成中學校 普成小學校를 引受하여 經營하시고 同德女學校를 設立하시고 京鄕에 有名學校를 設立 經營하는 한편 財政에 허덕이는 數十의 學校에 補助金을 주셨습니다. 公은 한번 손을댄 일이면 어떠한 境遇라도 물러서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3.1運動에 實質的인 役事를 맡았던 公은 그 생이 다할 때까지 民族을 爲한 굳은 意志를 굽히지 아니하셨습니다. 新幹會를 創設함에는 그 아들 末弘氏를 獨立의 祭壇에 바쳐야하는 아픔도 겪어야만 하셨습니다.

戊寅滅倭獨立運動은 日帝侵略에 對한 民族最後의 抗爭이라 할지니 公의 眞面目이 如實히 나타난 事件이었습니다. 때는 1937年 日帝의 暴力이 極에 達하여 거의 大部分의 愛國運動家들이 謫念狀態로 倭皇의 榮光된 赤子라 하여 競爭하듯 親日을 일삼던 때에 公은 全國의 敎人に 密令을 내려 日帝의 滅亡을 祈禱케 했습니다. 이時期는 日帝가 發惡의으로 專橫하던 時期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온것을 看破하신 것입니다.

當時의 狀況으로는 朝鮮의 獨立이란 도무지 實感이 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니다. 그러나 抗爭은 더 처절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와중에서 公은 還元하시고 이 事件은 日帝에 의해 適當히 處理되어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지 7년 公이 가신지도 5年 日帝는 亡하고 祖國은 光復하니 이 事件은 實로 悲壯한 歷史的 決斷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식어가던 光復의 意志를 蘇生시켰던 것입니다. 至誠이면 感天이라 先烈의 遺訓을 銘心하고 九天에 계신 公의 魂靈을 慰勞하면서 새 歷史 創造에 精進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西紀 1985年 5月 日

白山 李尙載 짓고 靜峰 金永德 쓰고
天道教 敎人後援

春菴 上師 朴寅浩 遺墟碑 建立推進委員會 세움.



謙虛한 마음가짐 處世 快活하고 庶民의인 朱署長 赴任

정부 인사 발령에 의해 조치원에서 예산경찰서장에 부임한 朱 淳明총경(58)은 부임소감을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군민에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치안행정에 힘쓰겠다."고 밝힌 서장은 충남대학교행정대학원을 나와 1950년 9월 1일 경찰에 투신하여 35년간 근속해온 베테랑.

쾌활하면서 무척이나 서민적인 성격으로 각종수집과 신문스크랩 등 취미가 매우 다양한 朱서장은 부인 전 봉임 여사와의 사이에 3남 2녀를 두었고, 고향은 대전.



理論·實務 謙備한 教育者

教職者 事情을 걱정하는 李教育長 赴任



문교 인사 발령에 의해 부임한 李 英腹(58) 예산군 교육장은 "지식위주의 교육보다 인간교육이 중요하며, 교사의 자질향상과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李 교육장은 지난 1946년 교직을 출발하여 58년 교장으로 승진된 후 장학사, 학무과장, 공주 금산 장학관을 거친 후 82년 교육연구관을 역임한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전형적인 교육자.

비교적 활발하고 솔직하다는 李교육장은 성격이 원만하고 부하 직원을 많이 생각한다라는 주위의 평이다.

李교육장의 가족은 부인 권 영임 여사와의 사이에 3남을 두었고, 취미는 등산, 고향은 청양이다.

明朗하고 소탈한 性格

賞福있는 李 副郡守 赴任

정부 인사 발령에 의해 예산군 부군수에 李 鍾爽(58)씨가 부임하셨다. 신임 李부군수는

"군수님의 참모로서 성실히 보좌하고 직원들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여 화목하게 지내는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그는 54년 공직을 출발, 66년 재무과장, 73년 행정사무관등을 두루 거쳐 84년 천안사회산업국장을 지내다가 이번 부군수로 부임했다.

63년 대통령표창, 69년 내부부장관 표창등 상복이 있어보이는 李부군수는 명랑하고 소탈한 성격인상시고, 취미는 바둑, 고향은 홍성이며 부인 李 玉璣여사와 2남 1녀.

教育廳 人事

【 학무과장 】

부 임 : 1981. 9. 1
성 명 : 이 준 세 (李 浚世)
전임지 : 덕산 중·고등학교장
연 령 : 1932년생

【 관리과장 】

성 명 : 김 정 규 (金 丁奎)
전임지 : 청양군 교육청
부 임 : 1985. 7. 29

◇ 詩 調 ◇

농 부

申 錫 根

인정이 끊이치는
외진 모퉁이에
갈아내어 꿀 만들고
쌈아 올려 두둑 지어
한옹름 씨를 뿌리며
풍년을 비는 손길.

허기진 뱃마디가
한껏 서럽고
찌들은 연륜이
주름살에 영겨도
순하디 순한 피 이은
마음이야 탁하리.

이끼끼 옛성터에서
태평을 캐어 본다
봄바람 가을비에
계절을 꽃피우고
얼하령 널리리 가락에
긴 세월을 묻는다.

(無限同人會同人)

◇ 詩 ◇

향 천 사

吳 精 忍 行

넷물을 따라 가다보니
논길로 접어들다
울퉁불퉁 들길에
내말길 이백삼십미리 (230 mm)

딸기밭 하나
포도밭 둘
그리고 사과밭을 지난다.

..... 보인다!

먼 밭치에
삼삼하게 펼쳐진
수목화 향

정정한 새소리
물오른 나무술
은은한 목탁소리
두손모은 함장으로
저절로 된 그림 한폭

(예산 향천사 신도)

多彩로운 프로 즐거운 만남 在仁川 禮山郡民會 定期總會 獎學金도 주어 勉學을 鼓舞

제인천 예산군민회는 지난 6월 2일 11시 송도 청량산 호불사에서 정 한식 회장 김 한수검사(大興)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향인 만남의 즐거움 제4회 정기총회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성대히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제인 예산군민회장 정 한식씨는 인사에서

“어머니의 따사로운 품과 같은 고향을 떠나 먼 고향 인천에서 만난 향우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재인회 모임에서 미래를 향한 의지의 날개를 펼칩니다. 서로서로를 믿고 이해하는 가교로서 선진조국 창출에 노력 합니다.”

라며 보다 나은 재인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자리에서 마련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는데, 김 정태(광성중학교 3년) 군과 장 성욱(영진상고 2년)군에게 각각 7만원, 10만원을 전달하고 훌륭한 미래의 주역이 되라고 격려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많은 향우들이 참석하여 다채로운 순서등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으며 서로의 친목과 상호상부의 의를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기약했다.



제인 예산군민회 회장단명단 다음과 같다.

회 장	정 한	직	씨
부회장	조 영	회	씨
	정 흥	량	“
	성 백	용	“
	김 인	배	“
	전 명	수	“

獨立記念館 建立 基金造成

修德寺 圓潭禪師 書畫展

6月 13日~18日 美都波畫廊

修德寺 圓潭禪師의 書畫展이 지난 六月 十三日~十八日 五日간 美都波畫廊에서 성대히 열렸다.

獨立記念館 建立喜捨金 造成을 위해 마련된 이번 書畫展은 獨立記念館建立 위원會長 안 춘성氏를 비롯, 부회장 최 창규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원담스님, 배우 김 지미氏등 많은 하객들이 參席하여 圓潭大禪師의 독특한 墨香의 진면목을 음미해 보았다.



이번 전시회는 抗日護國佛敎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克日興國의 높은 뜻을 모아 獨立記念館 建立의 큰 뜻이 원만회향(圓滿回向)되는 밑거름이 되는데 목적으로 書畫展이 마련되었다.

作品은 「無二妙光」등 書藝作品 80점과 도자기 「紅塵世界常閑水」등 5점, 달마大師 초상등 불교를 주제로 다양하게 전시되어 예술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J·C 創立記念事業

敬老잔치 書藝公募

예산 청년회회소(회장 오 강섭) 창립 13주년 기념식이 5월 17일 11시 예산반공회관에서 각 기관장, 지역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잔치와 도내 서예공모전을 겸해 성대히 열렸다.

회원전체가 합심 노력하여 봉사하는 예산 J.C는 창립 13주년을 맞아 국악인 8명을 초치하여 더욱 뜻있고 보람있는 행사가 되었다. 한편 도내 서예공모전에서는 약 250여점이 출품하여 초등부에서는 신 창보(논산반월국교), 중학부에는 정 진희(대전호수동여중), 고등부에서는 이 해정(예산여고)양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석가모니탄신 봉축 기념법회

내모신 掛佛아래 1,000余 信徒

불기 2529년 석가탄신 봉축기념법회가 지난 5월 27일(음 4월 8일) 예산을 향천리 소재 香泉寺(주지 권 자원스님)에서 불교신자 1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오전 10시 경내에 내모신 掛佛아래 목탁소리와 함께 색색의 연등이 수놓은 가운데, 봉축법회가 집전되었고, 2시에는 어린 학생들이 준비한 춤과 노래로 축제분위기는 절정에 다달았으며, 저녁 7시에는 모든 신도들이 농전교정에 모여 연등행사를 가졌는데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온 국민의 화합과 자비를 기원하였다.

한편 청년회에서는 기념품 판매와 전통차 판매로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 5월 25일에는 여의도 봉축대법요식에 버스 12대로 많은 신도들이 참여한 바 있다.



平統 郡 協議會

創立四週年 記念式

평통 정책자문회의 예산군 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전국적으로 발족한지 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평통회의실에서 李 正雨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 韓 道源평통회장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단한 기념식에 이어 전직 평통위원 임 덕로씨등 여섯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국민화합, 사회안정, 국력신장을 위해 '85특별순회 홍보활동을 방침을 세우고 각읍면 각고등학교를 집중홍보할 계획을 결의하였다.

社會淨化女性大學開設

每週 火曜日 禮山郡委員會

사회정화는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고 범 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서 지난 9월 3일, 예산 우체국 회의실에서 여성정화대학이 개설되어,

군협의회위원부인, 예산을 위원회부인, 여성단체회원 및 일반가정주부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가졌다.

예산군 정화추진협의회 주관으로 개설된 본교는 8주간 매주 화요일 2시간씩 운영되는데 정신교육과 생활교육 분야로 나누어지며 수덕사에서 극기훈련을 비롯 가정상식, 오락, 자녀교육, 가정경제, 요리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全國少年体典 四冠王 歡迎

挿橋中 盧選手 88에 期待



5월 22일부터 포항 경주에서 개최된 제 14 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삼교중학교(교장 손 제태) 3학년 노 일용선수가 금메달 4 개로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남자 중학 수영 혼계영 400 m, 접영 50 m에서 타시·도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1위로 골인하여 충남을 빛낸 노 선수는 양신군민학교시절부터 몸집이 좋고 균형이 잡혀 수영하기에 알맞은 체격으로 꾸준히 연습하여 오늘의 영광을

안았다.

삼교중학교는 개교이래 처음인 4관왕을 축하하기 위해 삼교을 변영희(회장 한 도원)와 같이 대대적인 환영을 하며 그의 금위환양을 축하하고 격려했으며 88 올림픽에 총망되는 선수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보고기 쟁탈서 우승

忠南 唯一의 男女 高校 팀

덕산고등학교(교장 이 준세)조정부는 지난 6월 25일(2일간) 경남 김해 앞바다에서 열린 제 11 회 장보고기쟁탈조정대회에서 지방학교로 전국을 제패하여 메스킵과 체육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 조정부는 지도교사 김 석기(39세)씨와 합숙하며 앞으로 있을체육부장관기쟁탈 전국조정대회를 향하여 새벽 5시부터 예당저수지 물살을 가르며 장훈련에 임하고 있는데 빈약한 예산으로 팀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학교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85년도 대회에는 전교생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출전했다며 각 단체나 기관에서 약간의 도와주면 아무



걱정없이 훈련할 수 있을 거라며 뜻있는 인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덕산고교 선수명단】

지도교사 김석기(39세) 덕산고
교 차 김성원(20세) 덕산둔리
선 수 최창도(3년) 고덕자곡리
이민우()
이희철() 봉산봉림리
신문철(2년) 봉산하평리
한두희() 고덕대천리
홍성균(1년) 삼교상하리
박승구() 봉산대지리
박상진() 삼교신리

【예산여고 선수명단】

감독 : 박종환
교 차 : 김성원
선 수 : 박철환(3학년)
이병인()
김춘환(2학년)
조재순(1학년)
김찬의()
김종숙()
이향옥()
정해영()



禮山自動電話 廣域化

宿願事業 6月12日 開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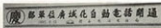
예산 전신전화국(국장 成南濟)은 6월 12일 오후 2시 군내 각 기관장과 내빈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식 자동전화 개통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成국장은 앞으로 보다 완벽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이번 광역화 시설공사 완료로 전국이 D.D.D통화가 이고장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국제자동전화(I.S.D)가 개통되어 문화생활에 큰몹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산전화국의 연혁을 살펴보면.

- 1923년 12월 26일 자석식 전화교환개시
- 1970년 12월 26일 예산전신전화본실 신축, 교환방식변경(자동차)
- 1982년 1월 1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창립
- 1983년 1월 1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예산전신전화국으로 발족
- 1985년 4월 30일 군단위 광역화 전자교환기 개통
- 1985년 각지역 국번

예산읍 오가면 2국 32국, 삼교읍 4국 33국, 대술 신양 읍봉 덕산 고덕 33국, 광시 대흥 산암 32국



郵政100年史 記念 趣味郵票展示 盛況裡

1985년 5월 6일 오전 10시 예산 우체국(국장 김호경) 전시실에서는 '85 취미우표전시회를 군내 기관장과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5월 6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는 외국의 진기한 우표와 우표 100년사 군사우표, 명화, 음악우표등 약 700여점이 한눈에 볼수있게 정리되어 있어 관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우체국에서는 취미우표를 수집기를 위해 년중 통신판매를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墨郷의 書脈에 期待

墨林書藝出身 吳馬君 全國展 入選

지난 5월 31일 한국소년지도자협회(서울종로2가)가 주최한 제31회 한국학생 글짓기, 미술, 서예대회에서 독립서예학원 수강생인 마상찬(동중 3년)군이 최우수상을, 오현우(예중 2년)군이 우수상을 차지하여 서백의 고장인 예산을 드높였다.

이 학생들은 약 3개월전 입학하여 石南 현 종석(79세)선생의 지도와 권영혜(權映惠)양의 따스한 보살핌으로 오늘의 영광을 얻었는데 앞으로 학생들의 장래에 기대에 크다.

독립서예학원은 예산 의백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약 40여명의 수강생들이 헌신의 힘을 쏟고 있어, 목향 앞날을 밝게 해주고 있다.

어린재롱 선보여 주다

세정유아원 가족운동회

예산읍 주교리에 소재한 세정 유아원(원장 이금순)의 가족운동회가 5월 27일 예산농업전문대학 교정에서 원아 270여명과 자모 그리고 다수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체조, 공굴리기, 팽귄춤, E·T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참석자들을 즐겁게 하였는데, 특히 시선을 끈 민들레반의 귀여운 소고춤(사진)은 참석한 이들의 박수를 많이 받았다.



梅軒文化祭 進行과 成果

月進會 參與人士와 評價會

梅軒文化祭를 주관했던 月進會(會長 尹圭相)에서는 5월 9일 11:00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忠義祠경내 島中島에서 第12회의 行事を 성대히 마치고 이祭典에 參與했던 各機關, 團體의 간부등 약 150여명의 한자리에 모여 同行事の 전반에 대하여 自體 評價會를 가졌다. 評價會에서 尹會長은 行事進行 과정과 入賞者시상문제등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관계자와 더욱 嚴密한 연구를 하여 내년의 行事에는 차질없도록 努力 할것을 다짐하고 내년부터는 더많은 機關과 團體에서 參與해줄것을 부탁하면서 아울러 더욱 알차고 값진 內容으로 祭典을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興겨운 敬老잔치

어버이날 禮山군서 마련

예산읍사무소(읍장 黃善甲)에서는 5月8日 어버이 날을 맞아 예산 반공회관에서 관내 老人 500여명에게 돌보기 안경 1개씩을 선물하고 정성들인 음식을 장만하여 흥겨운 農樂과 마당놀이, 창(唱) 등 여흥으로 노인들에 즐거운 하루를 마련했다.

한편 邑事務所 關係者는 이런 行事가 오늘 하루만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年中 계속 되어야 한다며 汎國民의 行事가 되도록 힘써서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른들이 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며 내용도 실질적이며 다채롭게 구성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禮 山 郡 誌

● 4月 5日

대솔면 산정리 산 27番地 第40回 植木日을 맞아 예산군에서는 임야에서 군청전직원 이 잣나무 苗木 2,000그루를 심는 第40回 植木日 行事를 가졌다.

● 4月28日 ~ 4月29日

梅軒 尹奉吉義士의 農村復興運動과 獨立 忠義精神을 기리기 爲한 梅軒文化祭가 3萬여명이 雲集한 가운데 忠義祠 島中島에서 月進會 및 各 社會團體 主管으로 12번째 盛大히 舉行됐고, 尹 義士 義學 第53周年記念 祭享行事가 忠義祠 本殿에서 安 應模知事, 李 康熙 梅軒紀念事業會長, 尹 圭相 月進會長等 有關機關長 및 關係人士 300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奉行되었음.

● 5月7日

獨立運動家이며 教育者이신 春菴 上師 朴 寅浩先生 遺墟碑 除幕式이 插橋邑 下浦里 1區 廣場에서 舉行됨.

● 5月8日

敬老 孝親思想을 널리 鼓吹시키기 爲하여 反共會館 大講堂에서 郡內 500여 어버이를 모시고 第13回 어버이날 記念 敬老잔치를 베풀었음.

● 6月6日

香泉寺 耆老會에서 各級機關長, 有志, 遺族이 參席한 가운데 나라위해 몸바치신 先烈的 넋을 追慕하는 第30回 현충일 行事를 가졌다.

● 6月25日

6.25 35周年을 맞아 各機關長, 人士, 各團體代表, 學生等 800余名이 反共會館에 모여 反共實踐 決意大會를 가지고 반공자세를 더욱 굳게 다짐했다.

● 6月26日

30年間을 公職에 몸담아 오면서 地域社會 發展은 물론 地方行政 具現에 半平生을 바친 鄭 鎭弘 新岩面 副面長의 停年 退任式이 李 正雨 禮山郡守를 비롯하여 有關機關長과 住民, 親知等 約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新岩面事務所 會議會에서 있었다.

- * 7月30日 勤務中 출도하여 투병중이던 吳錫鸞 副郡守가 7.28 10:00 에 忠大 부속 병원에서 순직하여 李正雨 郡守를 비롯한 全職員과 내빈이 參席한 가운데 郡葬 嚴守
- * 8月9日 第6代 李鍾奭 副郡守 취임식이 郡廳 會議室에서 職員 200名이 參席한 가운데 舉行
- * 8月26~28 까지 李鍾奭 副郡守는 邑面事務所를 초도순시 業務報告 청취하고 住民과의 간담회를 가졌음.
- * 9月4日 劉澤根 文化公報室長 고려병원에서 순직
- * 9月12日 찾아가서 도와주는 奉仕行政을 具現하기 위하여 郡은 新陽面 事務所에 移動 郡廳을 開設 運營

100名으로 構成한 合唱團

學校새마을어머니會서 創團

예산군 학교새마을 어머니회로 구성된 새마을어머니합창단 창단식이 지난 8월 5일 10시 김 동선교육장을 비롯 기관장 및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각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모회원 94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어머니들의 정서 선양과 여가활동에 커다란 기폭제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최 선자(예중 자모회) 회장은 인사에서



“어머니들이 어렵게 모인만큼 열심히 노력하여 예산지역 발전을위해 봉사와 사랑으로 이 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 합창단의 지휘자는 이 창옥씨, 반주자는 황 규숙 씨가 선임됐다.

1,200余學生 高장文化뿌리 再認識 文藝振興院支援 靑少年文化講座 盛了



5月22일부터 6月7日, 約17일동안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강좌를 문예진흥원의 支援으로 문화원에서 마련했다. “敬老孝親思想의 昂揚과 文郷예산의 올바른 이해 그리고 청소년과 사회와의 一體感을 目的으로 열린 이번 靑少年 文化講座의 강사진은 초빙강사와 郡守 教育長, 警察署長, 농대학장 그리고 郷土사 학가, 문학인, 등으로 구성하여 參席한 학생들에게 많은 呼應과 관심을 얻었다. 특히 내고장 古代史(강사 박성홍 先生)의 강의

에서는 실물자료와 영상필름을 통한 예산지방의 역사를 설명하였는데 학생들의 내고장에 대하여 새삼 감탄으로 내고장에 대한 증거를 넣어 주어 이번 강좌를 마친한 보람을 갖아 보았다.

마지막날은 문화원장(이항복)의 주최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자리에서 학생들의 “이런 주옥같은 시간을 갖게 해준 문화원측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관내 모든 학생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문화원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청소년 문화강좌에 참석한 학생수는 연인원 1200여명에 이르렀고 학교 수업시간이 끝난뒤의 시간을 활용하여 야간강좌로 마련하였다.

靑少年 文化강사 및 강좌시간표

【中學部】

음악·오락: 오세일담당

시간	일자	5월 28일(화)	29일(수)	30일(목)	31일(금)	6월 1일(토)
19:30~19:50	음악 오세일 (大興高校)	음악·오락 특강: 경로효친 (柳銀鉉)	음악·오락 특강: 경로효친 (권태기)	음악·오락 특강: 경로효친 (尹用健)	음악·오락 특강: 경로효친 (金東燧)	음악·오락 특강: 경로효친 (권태기)
19:50~20:40						
20:40~21:30	미술 안소자 (中央高校)	지리·풍속 우제화 (禮中校長)	사회생활 백주현 (農大教授)	내고장인물 이상재 (임성中校長)	내고장역사 이항복 (文化院長)	

【高等部】

음악: 오세일

시간	일자	6월 3일(화)	4일(수)	5일(목)	6일(금)	7일(토)
19:30~19:50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9:50~20:40	특강: 경로효친 (李正雨) (군수)	특강: 경로효친 柳銀鉉 (경찰서장)	특강: 경로효친 尹用健 (농대학장)	특강: 경로효친 金東燧 (교육장)	특강: 경로효친 (권태기) (학무과장)	
20:40~21:20	내고장古代史 朴性興 (地方史學家)	서예 高鳳柱 (書藝家)	문학 秋混 (作家)	윤리 白柱鉉 (農大教授)	근대사 明蕤堂 (農大教授)	
21:30~22:20	공해건강 朴炳善 (料外科院長)	내고장인물 李尙載 (임성中校長)	미술 李殷吉 (예산여고교사)	실학과예산 李恒靛 (文化院長)	내고장종교사 洪性烈 (農大教授)	

過勞로 殉職한 故 吳錫鸞 副郡守

禮山郡 郡葬으로 吊客300余名 哀悼裡



유족으로는 부인 신 옥순여사와 사이에 1남을 두었으며 장지는 천원군 광덕면 광덕공원묘지에 안장됐다.

지난 5월 25일 근무중 과로로 인한 졸도로 투병하다 순직한 고 오 석만 부군수(56세)의 장례식이 7월 30일 대전충대부속병원에서 300여명의 조객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군장으로 거행됐다.

3월 25일자로 부군수에 부임하여 소신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고혈압으로 타게한 오 부군수는 대전시청 회계과장, 홍성군 내무과장을 거쳐 44년간 지방행정 관서에 근무해왔다.

宿職하다 殉職한 故 鄭東局 教師

第子와 吊客의 哀悼裡 禮山女高學校葬

예산여자고등학교에서 순직한 고 정 동국 선생(51세) 영결식이 예산여고 강당에서 각급 기관장 및 임직원 학생, 학부모등 많은 조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오전 10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영결식은 임 동창교감의 고인의 약력소개 그리고 장 일환학교장의 조사, 학생대표조사, 장학관 및 기관장현화, 유족대표, 임직원현화에 이어 마지막으로 교가 제창순으로 거행됐다.

1985년 9월 17일 3시 숙직하다 순직한 고 정 동국선생은 우석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교사경력 15년이며, 유족으로는 맏 익재여사와 2남1녀가 있으며 학교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장지는 서산 선영에 안장됐다.



故 劉澤根 禮山郡 公報室長 腰切

고 유 택근공보실장의 장례는 지난 9월 6일 대덕군 산내면 자택에서 가족장으로 거행되었다.

지난 5월 16일자로 공보실장에 부임하여 근무해온 고 유공보실장은 2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9월 4일 서울 고려병원에서 졸도한후 사망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윤 영진여사와 2남1녀가 있으며 대덕군 산내면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남 시

오 현 숙

성하의 계절 여름이 왔다. 매일 똑같은 생활에 지친 수정은 그 무언가 화끈한 일이 없을까 곰곰히 생각하며 동네어귀에 들어서는데 저쪽에서 한 동네 사는 경희가 다가온다.

“수정아! 이제 퇴근하니?”

“응!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얼굴이 보기좋다!”

유난히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경희표정은 수정의 차분한 표정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수정아! 내일 토요일인데 무슨 약속있어?”

“아니! 왜?”

수정은 간단히 대답하며 아! 애가 무슨 좋은일이 있나 보구나하는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눈이 빛난다.

“응! 낚시가자구!”

“낚시?”

“예당저수지로 오후와 친구들과하고 가기로 했는데 수정이 너하고 지속이랑 같이 갈으면 해서!”

라며 경희는 수정이 혹시 안가면 어쩌나 하는 눈초리로 조용히 말을 건넨다. 수정이는 그리고 보니 낚시를 한번도 가본적이 없었다.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었는데 잘됐다 싶었다. 그래 이답답한 마음을 물에 말끔히 씻어버리고 오자 싶어.

“그러니? 잘됐다. 그러잖아도 낚시 꼭 한번가고 싶었는데!”

하며 흔쾌히 승낙하자 경희는 웃으며 반긴다.

다음날은 장마철이라는 일기예보와는 달리 해가 반짝이는 상쾌한 날씨였다. 가까이 에 있는 예당저수지에 실로 오랜만인 수정이와 만반의 준비부대는 버스에서 내려 신속이라는 곳에 자리잡고 텐트3대와 낚시대를 설치하느라 바쁘는데, 기분이 나면 유난

히 목소리가 큰 지숙이가 신이난듯 떠들어 대면 모두들 한번씩 웃어본다.

조용히 흐르는 넓은 저수지를 보니 기분이 탁트인듯 시원하다. 작은 파문이 이는 물결을 보며 수정은 밤에 별이 총총 나오면 시를 지어보리라 마음 먹고 있는데 반대편 대흥에선 불 빛이 하나 둘 커지기 시작한다. 수정과 지숙은 물가에 앉아 멋진 화음으로 노래를 불러는데 옆에서 입질도 안하는 낚시대를 지키던 경희오빠가 고기가 반상회하는지 잡히질 않는다고 투덜댄다.

저수지 뱅글른 넓은 기슭에 반짝이는 태궁들의 불빛이 총총 밝힌것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낚시로 즐기나 보다.

이야기하다 간간히 웃어대는 소리에 고기도 놀란듯 퍼득거리는 예당저수지에 밤은 조용히 깊어가고 이야기는 그칠줄 모른다. 몇몇은 아직도 소식없는 낚시앞에서 야속한 썩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고, 새벽에 보자고 베풀며 텐트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사람도 보인다. 한참 이야기하던 지숙이가 하늘을 보며 소리친다.

“어썸! 별이 하나도 없니!”

하니 일제히 하늘을 본다. 진짜 하늘은 째깍하다.

“별! 저쪽에 낚시꾼 불빛이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하며 경희가 붉으스레한 불빛이 가득한 반대편을 가리키는데 물 위에 비치는 불빛은 정말 낭만의 호수같이 코코해 보였다. 제1텐트엔 오빠들이, 제2텐트엔 야식을 준비하는 경희오빠가 분주하고, 제3텐트에 들어간 수정, 지숙, 경희는 라디오를 들어가며 시간가는줄 모르게 이야기 꽃을 피우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다.

“투두둑, 투두둑”

처음엔 조용히 들리더니 나중엔 제법 소리가 크다.

“아니! 이게 무슨소리아!”

“비오는것 같은데?”

“어머! 정말 비가 오네”

밖을 내다보면 지숙이 소리치자 모두들 근심스러운듯 하늘을 본다.

“이거 낭패군! 비가오면 어쩌나!”

하고 모두들 걱정하는데 그 중에 한명은 비온다는 소리에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별을 기다린다는 수정이, 그녀는 비를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텐트속에서 비를 만날줄이야! 그녀는 정말 저수지에 온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아! 비가 오는구나! 정말 즐거운 주말이야!”

라고 뇌까리는 수정이 기다리는것은 별이 아니었다. 진짜 그녀가 기다리는것은 후련히 쏟아지는 여름비 아니, 장마비였던 것이다.

禮山文化院 歷代院長

初代	張永福	55.10.15 ~	57.12.31
第二代	金炯煥	58. 1. 1 ~	61. 3. 8
第三代	朴炳善	61. 3. 9 ~	63.12.31
第四代	張永福	64. 1. 1 ~	65. 2.20
第五代	徐昌載	65. 2.21 ~	77. 9.24
職務代理	金基錫	77. 9.25 ~	78. 2. 7
第六代	李恒馥	78. 2. 8 ~	現在

現任員

院長	李恒馥	副院長	趙根昌	理事	李道祺	明元	嚴成	監事	朴容贊
----	-----	-----	-----	----	-----	----	----	----	-----

事務職員 更迭

總務職	吳賢淑
經理職	高仁淑
任 事 務 員	
事務局長	安在九
總務職	金知銀
依願辭職	

日誌 (5月~9月)

5.22 ~ 24	직업청소년 문화강좌
5.22 ~ 30	새가정 요리강습
5.28 ~ 6.1	중학부 청소년 문화강좌
6. 3 ~ 7	고등부 청소년 문화강좌
6.15	군내남녀 시조경창대회
6.18	정기 이사회
6.24	문화강좌 강사초빙 간담회
7.16	이사회 소집
7.27 ~ 29	그림터 전시회
8. 5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 창단식

編輯後記

于先 謝過를 앞세워야겠다.

- * 第6輯이 豫定보다 2個月이 늦어 進것은 事務障의 事情에서 였다.
- * 이번 號는 麗朝의 名賢 韓惟忠, 韓文俊父子의 特輯으로 삼았다. 崔完秀教授의 勞苦에 感謝한다.
- * 任存城 묘순이바위의 傳說을 마당 놀리로 構成한 台本을 掲載 豫定이었으나 다음 號로 미루어 놓았다.

季 刊

禮山文化院報

1985年 9月 30日 發行

9月號 (通卷7輯)

發行人兼
編輯人 李 恒 哉

印刷處: 光明印刷社(2-4102)

發行處

忠南 禮山郡 禮山邑 禮山里

社團
法人 禮山文化院

電話 2~2441

(非 賣 品)

